

환경관리인들이여. 직무능력에 날개를 달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에 대해-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이상호 회장

무더운 21세기의 한여름, 우리의 심신과 미래는 몹시 짜증나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입니다. 위태로운 기회의 위기야말로 절호의 호기를 약속해 주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다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20세기는 환경관리인의 업무가 기존사업장의 환경관리이고 법규준수이며 자격으로서는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의 환경기사였습니다. 제조분야이든 건설분야이든 엔지니어링분야이든, 환경기사의 자격증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자격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옥상옥 같은 부담이 드리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끝나가고 21세기가 막 시작되는 2000년 12월 31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법’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는 슬그머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추가하여, 우리 환경관리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는 (1) 각종 사업의 계획과 타당성 연구의 사전환경성조사 단계에서부터, (2) 기본설계(마스터 플랜) 및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단계, 그리고 (3) 착공시부터 완공후 5년까지의 사후관리 단계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가히 사업의 가장 중요한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 플랜에서부터 완공후 5년까지의 알찬 업무는 모두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유지관리보수 및 공해방지업무만을 기존의 환경기사에게 맡겨두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영향평가사는 기사급으로만 정해 놓고 산업기사급은 아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졸업자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시 자격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오늘날의 환경관리인들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 달라는 묵시적 암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분야의 환경기사 자격증만으로는 기존 사업장의 사후처리 업무로 환경업무에 관한 한 **반쪽 역할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환경관리인들로서는 너무나 성가신 책무 하나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올 여름의 무더위만큼이나 짜증나는 소식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이 현실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사업자의 입장으로서는 타당성조사와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고용하고, 사후관리단계가 지난 후에 해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과 기존의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의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원들에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크나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이러한 요구야말로 환경관리인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주는 엄청난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껏 강건너 불구경하던 일들이 바로 환경관리인들의 영역으로 확고히 굴러 든 것입니다. 용기있는 자에게는 감축할 만한 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사의 시험과목은 객관식 4지선다형의 1차(필기) 시험으로 (1) 환경학개론, (2) 환경생태학 (3) 환경영향평가론 (4) 환경평가관련 법규이고, 주관식 서술형의 2차(실기) 시험으로 (가) 환경계획 (나) 환경영향평가기법 (다) 영향평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학개론은 기존의 환경과학 개론이나 환경공학 개론 보다는 범위가 훨씬 광범위 합니다. 지속가능개발의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세계화의 안목마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수질환경, 대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환경, 소음진동 환경, 유해물질 환경 및 세계화의 종합환경 등입니다.

환경생태학은 생태학 원론의 환경분야 응용입니다. 세부과목으로서는 생태계의 구성, 육상생태계, 담수(육수)생태계, 해양생태계, 하구생태계, 산림생태계, 녹지·조경 등 입니다. 매우 광범위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교재만 선정한다면, 의외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론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입니다만 이미 환경부에서 모두 제시하고 교육마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해설이나 환경영향평가기법은 물론이고 생태계, 수질·대기·폐기물·해양·토양·소음진동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기법과 사후환경관리까지 용이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영향평가관련법규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점수 확보가 쉬운 과목입니다.

주관식 서술형의 2차 실기시험은 환경계획과 환경영향평가기법 및 영향평가법에 대한 주관식 설명사항이고 논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기를 결코 놓칠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본연합회에서는 환경관리인의 업무능력과 자기개발을 향상시키고, 전 회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8월 중에 “환경영향평가사” 문제집을 출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시어, 환경관리인들의 업무와 미래에 날개를 달고서 마음껏 비상하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